

비트캠프 제주센터 학습관리시스템 개발 시나리오 V1.0

제출자: 김형주

비회원 이영희씨 이야기

- 이영희씨는 제주시에 살고 있는 30세 여성이다.
- 어느날 친구 철수에게서 비트캠프 제주센터가 오픈했다는 얘기를 들었다.
- 평소 웹개발을 한번쯤 배워보고 싶었던 영희는 구글에서 비트캠프 제주센터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다.
- 비트캠프 제주센터는 영희씨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있었고, 강사진도 실력 있어 보였다.
- 강의는 3종류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9시부터 6시까지 매일 3개월을 배우러 다니기엔 너무 부담이 커서 다음 기회에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한다.

회원 박철수씨 이야기

- 박철수씨는 제주시에 살고 있는 30세 남성이다.
- 평소 웹개발에 관심이 있던 철수씨는 비트캠프가 제주센터를 열었다는 소식을 비트캠프 홈페이지에서 알게 되어 제주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다.
- 마침 일정과 맞는 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라 하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후 수강신청을 했다.
- 국비지원과정이라 사전에 준비할 것이 있어 오후에 근처 고용지원센터에 다녀왔다.
- 비트캠프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수강신청 접수완료라고 되어 있고 아직 수강이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다.

수강생 김자바씨 이야기

- 김자바씨는 제주시에 살고 있는 26세 남성이다.
- 평소 웹개발에 관심이 있던 자바씨는 비트캠프가 제주센터를 열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비트캠프 제주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하고 수강신청을 했다.
- 합격 소식을 듣고,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내 강의정보가 마이페이지에 올라와 있다.
- 개강일에 맞춰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한달이 지나 Java에 대한 과목시험을 보고 두번째 과목인 Web을 듣고 있다. 시험성적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.
- 출석 기준은 80%이상인데, 다행히 첫 한달은 지각 2번과 조퇴 1번을 하여 결석 1회를 한 것으로 마이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었다. 앞으로도 출석관리를 잘 해야겠다.
- 졸업 후 취업팀의 도움을 받아 개발자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싶다.
- 취업에 필요할지 모르니, 졸업 후 비트캠프의 수강확인증을 홈페이지 로그인해서 출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.

비트캠프 제주센터 직원 최비트씨 이야기

- 최비트씨는 제주시에 살고 있는 32세 남성으로 6개월전부터 비트캠프 제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.
- 국비지원과정이 인기가 많아 전화문의가 많이 오는데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직원전용인 LMS로 연결이 되어 개강예정 과정이나 이미 완료된 과정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전화응대를 쉽게 할 수 있어 좋다.
- 너무 많은 문의가 오는 공통 질문에 대해서 학원 홈페이지에 있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답변을 올려두었더니, 그 질문은 덜 오는 것 같다.
- 새 직원들이 많아 누가 어느 부서인지 찾아보고 싶으면 직원명단을 보면 알 수 있다.
- 지금은 없지만, 제주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총괄 대시보드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.

비트캠프 제주센터 행정팀 이행정씨 이야기

- 이행정씨는 제주시에 살고 있는 29세 여성으로 3개월전부터 비트캠프 제주센터 행정팀에서 근무하고 있다.
- 아침에 출근하면 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LMS에 연결되어 행정씨가 맡은 일들의 많은 부분을 처리할 수 있다.
- 좋은 소식이 들려 왔다. 비트캠프의 스타강사인 설민석 강사가 다음 분기에 제주센터로 출강을 오기로 했다 한다. 행정씨는 새과정 개설을 위한 과정코드를 추가하고 영업팀 김세일씨를 담당으로 지정했다.
- 원래 논의되고 있었던 유재석강사의 강의는 유강사의 일정상 개강이 힘들게 되어 만들어 놓았던 과정코드를 삭제했다.
- 오후엔 현재 진행중인 과정들의 출석 현황과 성적 현황들을 확인하고, 출석률이 80%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수강생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의를 주고 담당 강사들에게도 당부를 해두었다.
- 설민석 강사의 과정을 오픈한지 일주일 후, 담당영업사원인 김세일씨로부터 반배정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, LMS에서 해당반의 개강일, 종강일, 수업일수, 강사, 강의실 등 필요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반 개설을 확정하였다. 설민석 강사가 본사 일정 때문에 미리 양해를 구했던 날은 제외하고 수업일수를 확정했다.

비트캠프 제주센터 영업팀 김세일씨 이야기

- 김세일씨는 제주시에 살고 있는 27세 여성으로 3개월전부터 비트캠프 제주센터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다.
- 출근하니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. 비트캠프의 스타강사인 설민석 강사가 다음 분기에 제주센터로 출강을 오기로 했다는 것이고, 세일씨가 그 과정의 영업담당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이다.
- 세일씨는 즐거운 마음으로 설민석 강사가 진행할 과정에 대한 자료 작성을 시작했다. 기본 자료를 작성한 후 설민석 강사에게 문의할 내용들을 정리해 이메일로 보냈다. 곧 설강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와 질문한 내용들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.
- 정보들을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할 내용들을 만들고, 아주 멋지게 나온 설강사님의 사진을 받아서 추가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.
- 공지가 나가고 하루만에 정원인 30명을 훌쩍 넘는 신청자들이 수강신청을 완료했음을 LMS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.
-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여 국비과정등록 가능한 신청자들만으로 30명을 선정해 LMS에서 반배정을 완료하고, 합격생들에게 이메일로 통보해 주었다.
- 반면, 같은 달에 개강 예정이던 다른 강사의 과정에는 수강신청자가 30명에 훨씬 못미치는 10명 수준이라 다시 한번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내보내어 수강신청을 독려했다. 만약 수강생 모집이 잘 안되면 이 강의를 개설 못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. 그 경우 행정팀에 알려서 과정코드 삭제를 요청해야겠다.

비트캠프 제주센터 강사 설민석씨 이야기

- 설민석씨는 7년간 비트캠프에서 강의해온 스타 강사인데 제주센터 오픈 소식을 듣고 자원하여 우선 한 분기의 강의를 맡기로 하여 제주시로 장기 출장을 와 있다.
- 제주센터에서 새롭게 마련한 LMS에 로그인해보니 편리하게도 민석씨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마이페이지에 모여 있다.
- 우선 민석씨가 맡기로 한 강의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여 혹시라도 일정조정이 필요한 날은 없는지 확인했다. 다행히 미리 행정팀에 말해둔 일정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.
- 다음으로 수강생들의 명단을 확인했다. 정원 30명이 모두 등록하여 짝 찬 수업이 진행될 것 같다.
- 개강일 아침, 곳은 날씨 때문인지 30명 중 2명이 지각을 했다. 지각 명단을 LMS에 업데이트 했다. 다행히 결석한 학생은 없다.
- 한달 후, Java 과정을 마치고 과목평가를 실시했다. 학생들의 성적이 나쁘지 않다. LMS에 각 학생들의 성적을 입력했다.
- 다음날, 학생 입력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했다.
- 또 한 달 후, 한 명의 학생이 과정을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들었다. LMS에는 이미 반영되어 29명에 대한 출석, 성적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.

비트캠프 제주센터 웹관리자 송관리씨 이야기

- 송관리씨는 3년전 비트캠프 서초본원에서 국비지원과정 웹개발자 양성과정을 들은 후 개발자로 취업해서 근무하다, 고향인 제주시에 비트캠프가 센터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웹관리자로 취업해 일하게 되었다.
- 새로 만든 홈페이지에 admin 역할을 하고 있으며, 부서 및 직원 정보 관리는 admin 권한이 있는 관리씨만 할 수 있다.
- 출근해보니, 신입사원이 다음주에 입사예정라 하여 신입사원에 대한 정보를 LMS에 등록했다.

비트캠프 제주센터 취업팀 최미래씨 이야기

- 최미래씨는 35세 여성으로 비트캠프 제주센터 취업팀에 근무하고 있다.
- 주요 업무는 제주시에서 신규 개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체들을 찾고, 센터 수강생과 졸업생들에게 취업정보를 안내하고, 이력서 쓰는 것도 도와주고, 필요하면 면접 일정 잡는 것도 도와주고, 취업현황 등을 관리하는 일이다.
- 아직은 새 홈페이지에 있는 LMS가 학습관리 위주로 개발이 된 1단계라 미래씨가 하는 업무 내용은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.
- 전화통화로 지난달 졸업한 수강생 김자바씨가 제주시청에 취업했다는 소식을 알려와서 행정팀에게 김자바씨의 취업성공 내용을 LMS에 업데이트해달라고 요청했다.

비트캠프 제주센터 회계팀 홍회계씨 이야기

- 홍회계씨는 31세 남성으로 비트캠프 제주센터 회계팀에 근무하고 있다.
- 회계업무는 LMS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불편한 점들이 많아, 2차 개발시엔 회계팀의 요구사항도 반영이 되면 하는 바램이다.